

유럽에서의 데탕트, 1962-1975, Jussi M. Hanhimäki

- “European detente was a *European project*”: 유럽에서의 데탕트는 양극체제의 과잉에 대한 유럽의 도전의 결과.

- 1960년대 초반은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베를린 장벽과 쿠바 미사일 위기.

- 샤를 드골의 외교정책: “de Gaulle gave expression to a certain sentiment not only in France but in Free Europe as a whole.”

- Willy Brandt의 Ostpolitik.

- 1967년 NATO의 Harmel Report: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과의 협상을 강조.

- COCOM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서유럽 국가들의 통상정책에 대한 통제력 약화

- 동유럽 역시 소련의 통제력 느슨해짐. 1968년 알바니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탈퇴.

- 루마니아 차우체스쿠의 독자노선. 동유럽의 드골(?)

- 1966년 부쿠레슈티 선언: 유럽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안보 회의의 필요성.

★1968년 프라하 침공. 브레즈네프 독트린.

- 1975년 CSCE 체결.

- 미국은 CSCE가 소련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키신저는 Helsinki Accord가 스와힐리어로 쓰여진 것 같다고 비판.

- 소련은 인권 조항의 중요성을 무시.

- 유럽의 데탕트는 open-ended process. 어느 한 나라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관된 프로그램을 결여.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미소 데탕트보다 큰 지속력을 가짐. 미소 데탕트의 붕괴 이후에도 지속.

**Detente in the Nixon-Ford years, 1969-1976, Robert D. Schulzinger**

**The collapse of superpower detente, 1975-1980, Olav Njølstad**

미국의 관점에서 데탕트는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시기에 소련의 도전에 대처하는 현실주의적 전략으로 추진됨.

- ① Arms control replacing arms buildups. SALT의 중요성.
- ② Shift from US containment of Soviet expansionism to Soviet self-containment. 소련으로 하여금 국제관계의 현상유지를 옹호하도록 유도.
- ③ 경제, 기술, 문화 교류

소련 역시 핵무기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분쟁 통제라는 목적을 공유.

- ① 미국과의 군비경쟁의 어려움을 인식
- ② 서방의 상품과 자본, 기술이 소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미국의 데탕트 외교로의 전환은 거의 전적으로 닉슨과 키신저의 현실주의 외교의 결과. 외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배제하고 back channel을 통해 협상. 인권 문제 배제.

1972년 5월 23일~29일 모스크바에서 협상을 통해 SALT I을 비롯한 합의를 이끌어냄. SALT I: 미국은 1,054기의 ICBM, 656기의 SLBM, 소련은 1,618기의 ICBM, 950기의 SLBM의 보유를 허용. 격차는 미국의 MIRV로 보완.

이외에도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무역협정. CSCE의 개최에 합의 12개조의 Basic Principles of Relations: “평화적 공존과 주권, 평등, 불간섭, 상호이익”의 원칙하에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

미국 국내의 비판적인 여론. Henry Jackson: SALT가 소련의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주었다고 비판. 인권 문제 제기. 소련 내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 문제. 매해 60,000명의 이주를 허용하라는 요구를 MFN 지위 부여와 연계. 소련은 MFN 지위 요구를 포기. 이집트,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에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다른 편을 지지.

1974년 포드와 브레즈네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SALT II를 체결하기로 합의. 데탕트에 대한 미국 국내 여론은 더 악화. 양골라 내전 문제. CSCE에 대한 미국 내의 반감. 1975년 사이공 함락.

카터: “a new and genuine detente”. 1977년 3월 “deep cuts”: 양국이 핵전력의 20-25% 감축. 소련의 반발. 이후 에티오피아-소말리아 분쟁. 1978년 중국과 수교. 1979년 비엔나에서 카터-브레즈네프 정상회담. SALT II Treaty 서명. SS-20, Pershing Missiles 유럽 배치.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실패 원인

- ① 신뢰의 부재
- ② 공동의 가치와 비전의 부재
- ③ 경제적 상호의존의 부재
- ④ dynamics of arms race
- ⑤ 특히 닉슨-키신저의 경우: backward-looking. 국제관계의 새로운 조류를 읽지 못함.